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5년 4월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희한한 궁전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게 될 원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 평양에 이어 각 도들에도 육아원과 애육원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바로 두달전에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런데 이렇게 완공을 앞둔 이곳을 또다시 찾으시여 밝게 웃으며 뛰어놀 원아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니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은 진정 자식을 위한 일에서 보람을 찾는 친아버지의 모습그대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외우시였다.